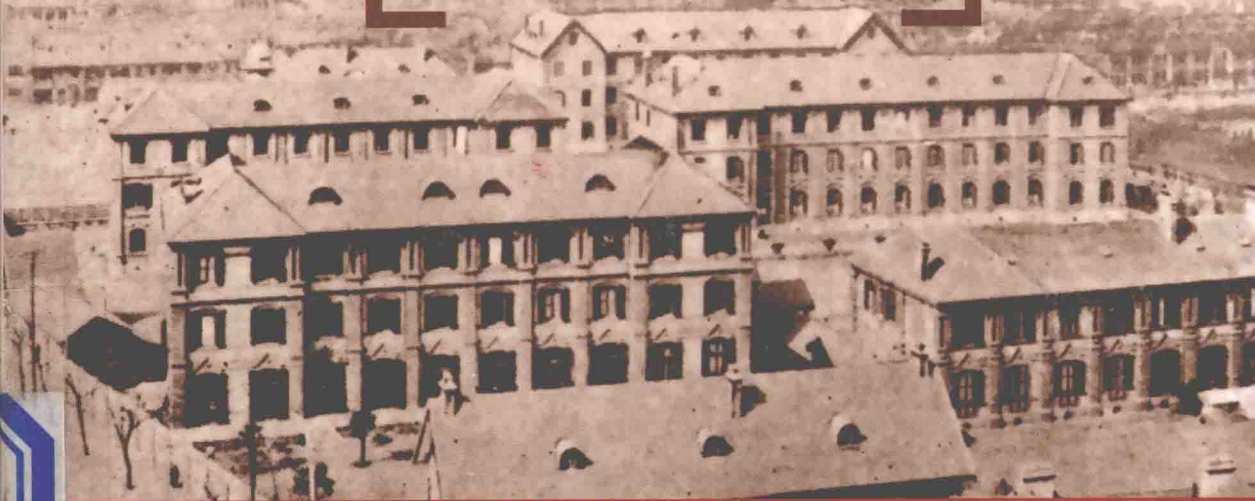


# 상해의 한국문화지도

上海的  
韩国文化地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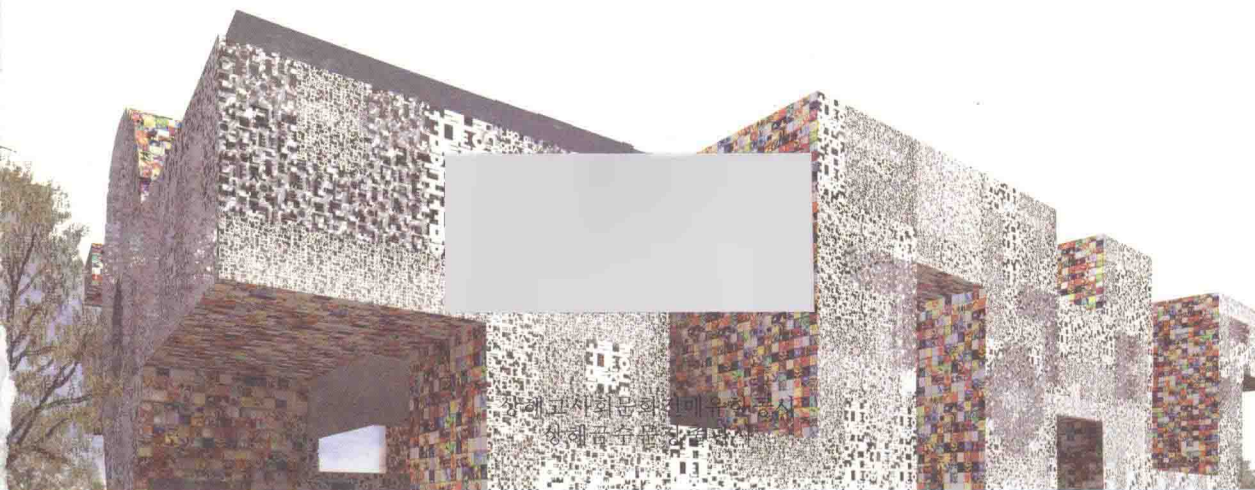
순커즈 · 김광재 지음

상해교사회문헌자료유한공사  
상해금수문장공사

# 상해의 한국문화지도

上海的  
韩国  
文化地图

순커즈·김광재 지음



상해고서회문화재단출판  
상해고서회출판부



上海文艺出版(集团)有限公司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上海的韩国文化地图:朝鲜文/孙科志,金光载著;金光载译.—上海:上海锦绣文章出版社,2010.7

(上海的外国文化地图)

ISBN 978-7-5452-0618-0

I. ①上… II. ①孙…②金… III. ①中外关系—文化交流—文化史—上海市,韩国—朝鲜语

IV. ①K295.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081805号

발행인 허칭웨이(何承偉)

책임편집 저우인(周吟)

특약감수 왕레이상(王瑞祥)

전체디자인 저우엔메이(周艷梅)

사진제작 페이홍런(費紅蓮)

인쇄감독 장카이(張凱)

서명 상해의 한국문화지도

저자 순커즈·김광재

출판 상해금수문장출판사·상해고사회문화전매유한공사

발행 상해문예출판(집단)유한공사

전화: 021-60878676

021-60878682

팩스: 021-60878662

주소: 상해 타포로443호 롱커대하1501실

이메일: wyfx2088@163.com

우편번호: 200023

인쇄 상하이퐁아고인쇄유한공사

판수 2010년 7월 제1판 2010년 7월 제1차 인쇄

규격 700×1000 1/16삽입쪽 인장11.5

ISBN 978-7-5452-0618-0/K·2951

정가 78.00위안

판권소유 무단복제금지



상해고사회문화전매유한공사

rychina.cn

상해고사회문화전매유한공사는 무료로 우편 구입 가능(등기 제외)

합니다: 상해고사회문화전매유한공사

주소: 상해시 소흥로 74 호 (200020)

전화: 021-54667910

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인쇄소로 연락해주시시오 T:021-68915165



### 총기획

허칭웨이(何承偉) : 상해문예출판집단 총편집

### 주편

성위에즈(熊月之) : 상해사회과학원 부원장, 역사연구소 소장, 중국도시사연구중심 주임

우전(吳辰) : 상해시당안국 국장, 상해시당안관 관장

### 실행주편

마세창(馬學強) : 상해사회과학원 중국도시사연구중심 부주임, 연구원

싱젠룽(邢建榕) : 상해시당안관 편연부 주임, 연구관원

## 상해와 세계를 이어주는 총서

상해문예출판집단 총편집 허칭웨이 (何承偉)



2002년 세계정기간행물연맹 아태회의에서 보고하는 필자

출판업계 종사자들 가운데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도서전은 도서 세계를 이해하는 창구이다. 하지만 정기간행물 종사자들은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세계 정기간행물 연맹대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대회는 세계 정기간행물 산업의 추세를 알 수 있는 풍향계와 같은 것이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반 중국은 아직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그때부터 본인은 중국 정기간행물 업계를 대표하여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세계 각지를 분망하게 쫓아다니면서 언젠가는 정식 자격으로 세계 간행물 연맹대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중국의 국력이 증대되고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2002년 봄 남미의 아르헨티나 수도에서 중국 정기간행물 종사자들은 마침내 이 염원을 이루게 되었다.

교류는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연맹대회 가입 신청 과정에서 다른 나라 친구들도 답방 형식으로 우리의 조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간 본인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의 현상을 발견하였다. 본인은 외국인 친구들이 올 때마다 정성을 다해 중국의 문화, 자연, 역사, 현대에 걸친 다채로운 방문 코스를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외국인 친구들은 비록 경탄을 연발하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서로 허물이 없게 되자 본인은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물었다.

의외로 그들은 “이곳에서 우리들이 가보고 싶은 곳은 우리 조국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은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래서 그 영국 친구는 와이탄 12호 회풍은행(HSBC), 한국 친구들은 마당로에 있는 석고문 주택 - 당시 한국임시정부의 소재지, 이스라엘 친구들은 명성이 자자한 상해음악학원 뿐만 아니라 골목을 찾고 찾아 주산로(舟山路) 59호의 작은 집을 방문하였다. 그 집은 미국 대통령의 비서 - 미국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유대인 마이크 프루먼셜이 상해에 피난했던 8년의 시간을 보냈던 곳이라고 한다.

왕년의 지나간 일들이 이렇게 강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생각해보니 우리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가서는 굳이 그곳의 상해촌을 찾아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2010 년 상해는 엑스포를 개최한다. 어떤 이는 본인에게 “7000 만명이 엑스포를 참관하러 온다는데, 당신이 가장 만들고 싶은 책은 어떤 것이오?”라고 물었다.

본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상해의 외국 문화 지도》요”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총서의 출판은 상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세계 각국 친구들의 마음과 이어주는 큰 차원의 교류사업이기 때문이다.

《상해의 외국 문화 지도》총서는 상해 개항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국 문화가 상해에서 탄생하고 발전하며 중국 본토 문화와 상호 융합하는 다이나믹한 모습을 담아내고 국제 문화 교류 중심이라는 상해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의 많은 독자들을 위한 이 총서는 편집 과정에서 시종일관 이 총서만의 특색을 추구하였다.

먼저 이 총서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상해의 외국 문화 지도》총서는 주로 상해를 방문하는 국외 인사들을 위해 무겁지 않은 필체에 얘기를 하는 듯한 살아 있는 방식으로 세계 각국 문화가 상해라고 하는 동방의 국제도시에서 펼친 독특한 매력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이 총서는 예쁜 책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다. 사진은 상해에 갔을 해외 관광객들에게는 문자가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보다 더 훌륭한 사진을 신기 위해 고심하였다.

그 외에 이 총서는 믿을만한 공구서이다. 총서에는 백과사전적인 지식, 표, 지도들이 빼곡이 배치되어 있어 해외 인사들에게 상해에서의 각국 문화의 상징적인 특징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여행정보와 레저 서비스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상해에 오는 외국 친구들이 상해가 그들에게 그렇게 먼 어떤 곳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본서의 내용은 그 나라가 상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남기고 있는 역사의 흔적이나 지난 30 년 동안 이들 나라들이 중국경제와 문화 발전에 끼친 상징적인 사실들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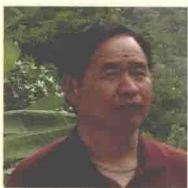
《상해의 외국 문화 지도》총서가 상해를 세계와 이어주는 교량으로 외국 친구들의 바램을 만족시켜준다면 본인과 같은 중국 출판인으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2003년 상해문예출판총사를 방문한  
세계정기간행물연맹 주석

## 중화문화가 외국문화와 만나 융합하는 속에서 승화하다

상해사회과학원 부원장, 근대사연구 전문가 성위에즈(熊月之)



근대 상해가 “동방의 파리”, “동방의 뉴욕”, 혹은 “십리양장”으로 불리는 것은 이곳이 외국문화 특히 서방문화의 영향이 농후하였고 상당한 숫자의 서양인들이 거주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상해에 온 가장 빠른 시기는 명대이며 숫자는 현재가 가장 많다.**

상해에서 외국인의 존재는 명대인 1608년(만력 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이태리 선교사 곽거정이 서광계의 초청을 받고 상해에 와 교당을 세우고 신도들을 끌어모으며 선교사업을 발전시켰다.

1843년 상해가 통상항구가 된 후, 영국조계(1845년), 미국조계(1848년), 프랑스조계(1849년)가 이어 개설되었다. 그리고 영미조계가 합병되어 공공조계(1863년)가 형성되면서 상해에 오는 외국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또 거주하는 기간은 전에 비해 길어졌다. 1843년 등록된 상해 거주 외국인은 26명이었고 1846년에는 100명을, 1850년에는 200명을 넘어섰다. 1853년 이전, 비교적 엄격한 “화양분거(중국인과 서양인의 분리 거주)” 정책의 시행으로 조계의 발전과 외국 교민의 증가는 더디었다. 1905년에는 1만명을 넘었고 1915년에는 2만 명, 1925년에는 3만 명, 1931년에는 6만 명을 초과하였다. 그후 몇 년 동안에는 6-7만 명을 유지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인이 대규모로 쏟아져 들어와 상해의 외국교민 총수는 빠르게 팽창하여 1942년에는 150,931명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 및 서방 교민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상해의 외국교민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1949년 말에는 3만 명이 채 안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외국과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여행을 하거나 사

업상 혹은 유학 목적으로 상해에 오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났다. 2008 년 상해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15.21 만 명으로 그 가운데 취업자는 7 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들은 주로 일본, 한국, 미국,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에서 왔다. 2008 년 상해는 53 개 국가의 71 개 도시와 우호도시 혹은 우호교류관계를 수립하였다.

## 가장 많을 때는 58 개 국적의 외국인이 있었고 직업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상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근대 상해의 외국교민들은 가장 많을 때는 58 개 국적에 달했는데,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인도, 포르투갈, 이태리,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벨기에, 네델란드,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이다. 1910 년 이전에는 영국인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포르투갈 등이다. 1915 년 이후에는 일본인이 1 위로 뛰어 올랐다. 1942 년 상해거주 일본인은 94,768 명으로 다른 외국교민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일본을 제외한 각국의 교민이 가장 많았을 때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무국적 러시아인, 14845 명(1936 년)<sup>①</sup>; 미국, 9775 명(1945 년) ; 영국, 9234 명(1935 년)<sup>②</sup>; 프랑스, 3872 명(1946 년) ; 오스트리아, 3453 명(1946 년) ; 독일, 2538 명(1942 년) ; 인도, 2389 명(1935 년)<sup>③</sup>; 포르투갈, 2281 명(1946 년) ; 조선, 2381 명(1946 년) ; 월남, 2350 명(1946 년) ; 이태리, 1048 명(1945 년) ; 폴란드, 1042 명(1942 년) ; 그리스, 627 명(1946 년) ; 체코, 581 명(1946 년) ; 스페인, 493 명(1946 년) ; 덴마크, 468 명(1942 년) ; 스위스, 407 명(1946 년) ; 노르웨이, 387 명(1942 년) ; 네델란드, 201 명(1946 년) ; 스웨덴, 198 명(1946 년) ; 우루과이, 104 명(1915 년).

근대 상해의 외국교민은 주로 공공조계, 그 다음으로 프랑스조계에 분포하였다. 1900 년 공공조계에는 6774 명, 프랑스조계에는 622 명의 외국교민이 있었다. 공공조계의 외국교민은 프랑스조계의 그것보다 10 배 이상이었다. 1914 년 이후, 프랑스조계가 확대발전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교민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1935 년 공공조계에는 38,915 명, 프랑스조계에는 18,899 명으로 늘어났다. 그 가운데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포르투갈 교민은 공공조계에, 프랑스인 및 무국적 러시아인은 주로 프랑스조계에 거주하였으며 기타 외국교민은 두 조계에 흩어져 거주하였다. 대체적으로 보아 영국, 미국, 일본, 포르투갈 교민은 90% 이상이 공공조계에 거주하였다. 공공조계에서는 소주하 이남이 먼저 개발되고 후에 그 북쪽이 개발되었다. 때문에 영미교민은 소주

① 공공조계의 무국적 러시아인 숫자는 1935 년의 통계이다.

② 1935 년 재상해 영국인 숫자는 공공조계 6595 명, 프랑스조계 2639 명(1934 년의 2630 명과 1936 년의 2648 명의 평균수치)이다.

③ 프랑스조계 인도인 수는 1934 년(47 명)과 1936 년(50 명)의 평균수치이다.



하 이남에 많았고, 일본인들은 소주하 이북의 홍구 일대에 집중 거주하였다.

다양한 시기, 다양한 국가의 교민들은 상해에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다. 예를 들어, 인도 및 베트남인들은 주로 공공조계, 프랑스조계의 순포로 충원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상인들이 많았다. 1850 년 상해 외국교민은 모두 220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양행 주인 및 그 대리인이 111 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선교사 13 명, 영사관원 7 명, 그 외에 신문기자, 의약사, 건축사, 목공, 요리사 등의 순서이다. 1870 년 상해의 외국교민은 1,666 명으로 해운업 및 선원 412 명, 부녀와 아동 358 명을 제외하고는 상인이 226 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는 영사관원, 엔지니어, 고용인, 노동자, 경찰, 자유직업, 서비스업, 수공업, 검사인원, 은행가와 선교사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1935 년과 1946 년의 통계는 외국교민 가운데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40%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 **상해 외국 교민 가운데 유태인과 무국적 러시아인들은 특수한 집단이었다.**

상해 개항 이후, 유태인들은 끊임없이 상해에 왔다. 그렇지만 숫자는 많지 않았다. 1933 년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한후 유태인에 대한 대규모 박해와 학살이 시작되었다. 1938, 39 년 이후, 유럽에서 나치의 유태인 박해가 극심해지면서 살아남은 유태인들은 고향을 떠났다. 특수한 정치적 환경하에 있던 상해가 유태인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1933 년부터 1941 년까지 상해는 독일이나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서 온 3 만여 명의 유태 난민들을 수용하였다. 그가운데 약 5,000 명은 상해를 거쳐 다른 곳으로 갔으며 나머지 2.5 만명의 유태인들이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상해에서 생활하였다. 이는 당시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가 수용했던 유태 난민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이들 유태 난민들 가운데 4,000 명은 프랑스조계에 거주하였으며, 1,500 명은 공공조계, 그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이 통제하던 홍구 일대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당, 학교, 병원 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를 간행하였으며 상점이나 커피숍을 개업하는 등 독특한 유태인 거주지역을 형성하였다. 물론, 이들 유태인들은 결코 상해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며 전쟁이 끝나자마자 떠나갔다. 어쨌거나 그들은 상해 역사에 특별한 기억을 남겼다.

1917 년 10 월혁명 이후, 많은 러시아 귀족들이 상해로 망명하였다. 러시아와 프랑스의 관계가 깊었고, 게다가 당시 프랑스정부가 볼셰비키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조계당국은 러시아교민들을 배려하였으며 러시아 교민들은 프랑스조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이들 러시아 교민들은 문화적인 소양이 높았다. 그들 가운데는 상해에 오기 전에 성페테스부르크극장에서 활동하던 지휘자, 연주자, 성악가, 발레 무용가, 합창대원들이 많았다. 러시아 교민들은 상해

에 유럽 생활 방식을 가져왔으며 서방 문학, 시가, 회화, 희곡, 발레, 음악, 무용 등 문화 예술을 보급하였다.

### 외국인들은 상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형형색색의 외국교민들이 상해에서 살아갔다. 직장, 공장, 상업, 학교, 의료, 선교, 신문출판, 유학, 댄스, 사냥, 경마, 물론 그 외에도 밀무역, 마약판매, 범죄도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클럽이나 각각의 활동범위가 있었다. 세계각국의 생활방식, 생산방식, 풍속습관을 상해로 가져왔는데, 상수도, 가스등, 전등, 마차, 자동차, 자전거, 재봉틀, 자명종, 휴식제도, 요일제도, 교육제도, 도시관리제도, 선거제도, 자유, 평등, 박애, 하나님 등등 외국의 물질문명, 제도 및 정신문명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상해사회에 대해 매우 광범하고 지속적이고도 깊고 복잡한 영향을 미쳤다. 싸쑤, 하통, 래스터, 플레이어, 알렌, 혹스, 퍼거슨, 햄프리, 카트리 등등 이들 유명한 노상해 명사들은 많은 이야기꺼리를 남겼다. 회풍은행(HSBC), 이화양행, 취천씨대약방, 영미연초공사, 목해서관, 자림서보, 인제의원, 서가휘천주교당, 성요한대학, 진단대학, 호강대학, 중서여중, 서취공학, 경마장, 경견장, 황포공원, 제스필드공원 등등 이곳들은 노상해에게 남다른 감회를 주고 있다.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 외국 공장, 외국 물건, 서양 만화경, 동양 만화경이 가득찬 상해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충만한 도시가 되었다. 어떤 이는 근대 상해 외국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남경로를 걷다보면, 세계 민족 박람회에 온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큰 키에 긴 수염을 날리는 러시아인, 뚱뚱한 독일인들이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작고 마른 일본 군관도 마주칠 것이다. 그는 매우 의기양양하며 우수한 야마토민족의 일원임을 뽐내면서 유럽 정복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기염을 토한다. 처세술에 능한 중국인들은 서양 마차를 타고 있으며, 몹시 야윈 미국인은 인력거인 황포차를 탄다. 오토바이가 쏠살같이 지나가는 바람에 하마터면 중국의 고관 부인이 타고 있는 커튼을 친 가마와 부딪칠 뻔 했다. 어떤 프랑스인은 좁은 인도에서 황색 고급 외투를 입고 있는 인도인에게 모자를 벗어 인사를 하고 있다. 런던 사투리가 섞인 혀를 꼬부린 독일어가 귀에 들린다. 파리의 새로운 패션 의복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 옆에는 옷통을 벗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가 서 있다. 선원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쏠살같이 지나가자 일본옷에 게다를 신은 일본 여급이 화를 내면서 몸을 돌려 피한다. 회색 승복을 입은 승려가 긴 수염의 로마 선교사와 팔꿈치를 스치면서 지나간다. 어떤 애국심이 강한 러시아인의 상점에는 상품 가격이 온통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 사람들을 망연자실하게 한다. 그 길 건너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이발소가 있는데, 주인은 생경한 영어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광고하고

있다.”<sup>①</sup>

외국교민은 상해에 영향을 주고 상해 또한 외국 교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외국교민 특히 구미교민들은 상해에서 그들 자신들의 모국과는 전혀 다른 생활방식, 즉 “조계 교민들의 생활방식”을 만들어냈다.

일부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원래 변두리에서 맴돌던 인사들로 지위가 높거나 부유하지 않았는데, 상해에 온 뒤에는 자신들의 신분을 돋보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영국 신사는 아무리 더위도 양복을 반듯하게 갖춰 입었고 영국 부녀들은 아무데서나 귀부인의 자태를 뽐내려고 애썼다. 어떤 영국 귀부인은 손수건이 땅에 떨어지면 집안의 관리인을 부른다. 그런데 그 관리인도 거만하게 하인을 불러 손수건을 줍도록 하였다. 현란하고 뽐내며 허풍을 좋아하는 태도는 많은 서양 교민들의 특징이다. 많은 구미인들이 중국말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중국인을 무시했고 중국인이 공원이나 경마장, 외국인 클럽 등과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는 중국인의 감정을 극도로 해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 민족주의의 발흥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물론, 중의 문화를 융합하는 방면에서 중요한 이바지를 했던 이도 부지기수다. 프레이어는 상해에서 백여 종의 서양서적을 번역하였으며 맹아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래스터는 평생의 저축을 상해에 헌납하여 학교를 세우고 빈민을 구제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전통의복인 마패와 치파오를 즐겨 입었고 상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결코 드문 것이 아니었다. 양칭방영어는 상해만의 독특한 현상으로 상해의 영미교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저급한 이 양칭방영어를 구사하였다. 그들이 탔던 말도 대개는 몽고말이었고 일상에서 먹는 콩, 배추, 소고기도 모두 상해 현지에서 생산된 것들이었다.

적지 않은 영미 교민들의 마음속에 상해는 하나의 신세계이자 아름다운 곳으로 자신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이었다. 때문에 19 세기 후반에서 20 세기 30 년대까지 수많은 서방 청년들은 상해로 가서 때돈을 버는 꿈을 꾸었다.

조계교민의 생활방식에 익숙해진 많은 구미교민들은 모국에 돌아간 뒤에도 상해시절이 자신들의 일생에서 가장 좋았다고 회고하였다. 어떤 영국 여사는 상해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는데, 영국에서는 단지 4 년 동안 공부했을 뿐이다. 그녀는 상해에서 매우 우아하게 생활하였는데 패션이나 댄스로 외국교민 사회에서는 꽤나 유명했다. 그녀는 35 세 되던 그해, 남편을 따라 영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결국 영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49 세에 죽고 말았다.

외국 교민들이 생활하는 상해 조계는 매우 특수한 곳이다. 조계를 식민지인 홍콩과 비교

① Gascoyne-Cecil and Cecil, *Changing China*, pp. 104-105 (卢汉超:《霓虹灯外(네온사인 너머로)》,段炼 译, 31-32쪽)

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하나는 떼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빌려주는 것이다. 홍콩 총독은 영국정부를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하는데, 상해 공공조계는 교민 자치이며 납세자회의가 실권을 장악하고 행정기구인 공부국은 영국정부가 아니라 납세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법률 방면에서 중국인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회심공해는 영국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중국과 서양이 혼재된 법률을 적용한다. 때문에 외국 교민들은 상해에서 우월감을 지니고 있으며 상해에 대해 정체성을 강화시켰다. 또한 이곳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상해를 떠난 후에는 이곳을 그리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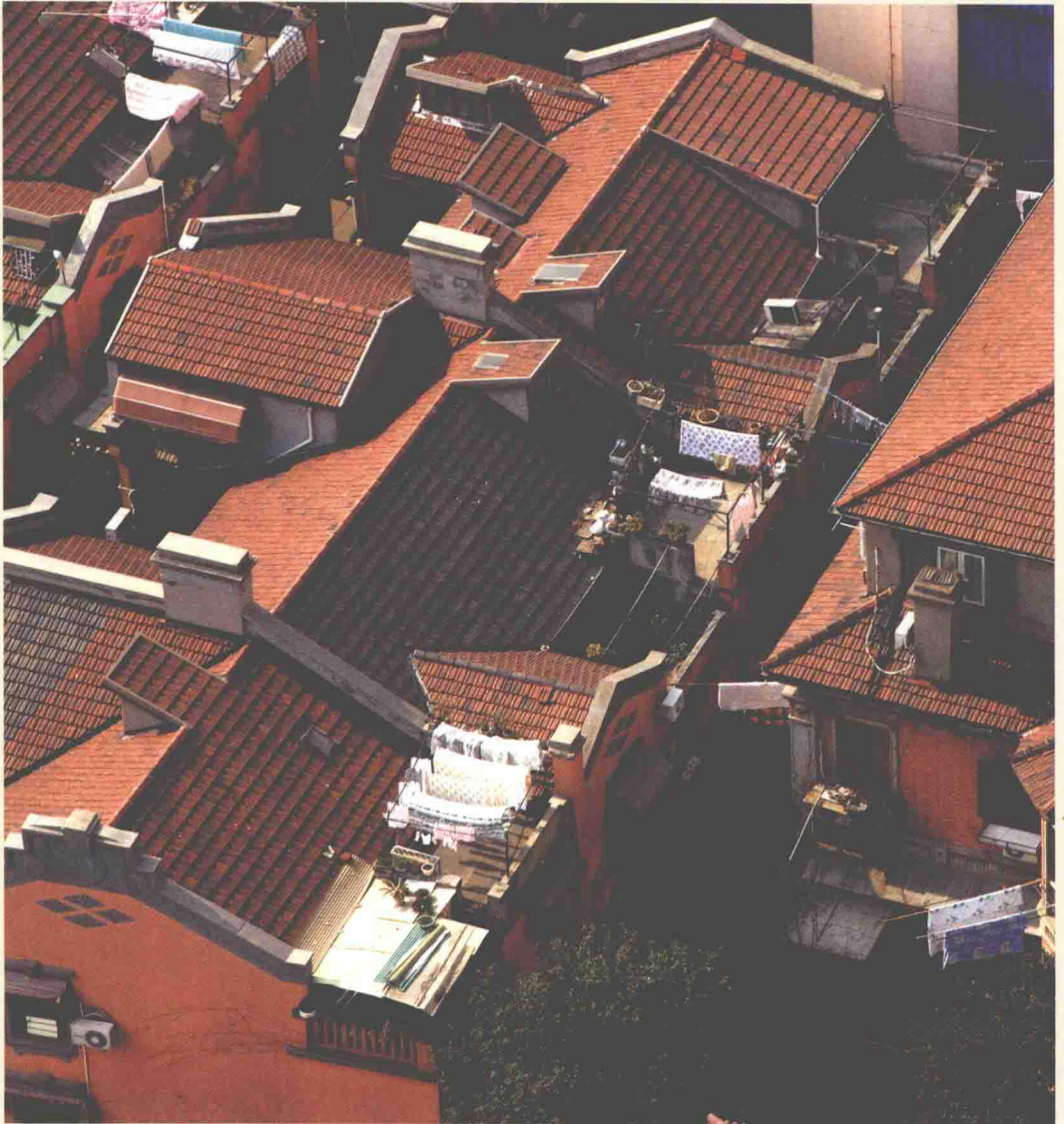
근대 상해는 하나의 작은 세계였다. 세계 각지의 아주 작은 일에도 상해는 영향을 받았다. 1884년 청불전쟁 기간 동안, 상해의 프랑스인은 적성국 교민으로 간주되었으며, 상해 프랑스조계는 한때 러시아가 대신 관리하였는데, 프랑스조계의 프랑스 국기가 러시아 국기로 바뀌기도 하였다. 1894년 중일갑오전쟁때, 일본 주상해영사관의 업무는 미국영사관이 대신 관리하고, 일본 국기가 미국 국기로 바뀌었다. 1904년 러일전쟁 기간, 중국은 중립을 선포하였지만 상해에서의 러일간의 교섭은 계속되었다. 이들 전쟁 기간, 관련 당사국 교민들은 비록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많이 놀랐던 것도 사실이다. 제 1차 세계대전 기간, 중국은 먼저 중립을 선포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와는 절교하고 선전을 포고하였다. 상해의 독일 및 오스트리아 교민들은 국제조약에 의거해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여권을 지급받아야 했고 그들의 상선은 중국이 임시로 관리하였으며 철도 관련 업무를 하던 이들도 모두 사직을 하여야만 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송환되었다. 1917년 러시아에서 10월혁명이 발발하자 상해에는 무국적 러시아인이 쏟아져 들어왔다.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상해 외국교민들의 생활은 큰 영향을 받았다. 교민들은 적성국 및 비적성국 교민으로 나뉘어져 적성국 교민들은 붉은색 완장을 차야했다. 완장에는 영문으로 국적을 표시했는데, A는 미국, B는 영국, H는 네델란드, X는 기타 국가였으며 적성국 교민들은 한때 포로수용소에 갇히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상해는 열강들이 쟁탈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열강간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청우계이다. 19세기 영국인의 세력이 강할 때는 상해 영국인의 세력이 강했으며 1930년대 일본인의 힘이 강할 때는 상해의 일본인이 많았으며, 1945년 이후 미국의 세력이 강성할 때는 상해 미국인의 발언권이 강했다.

수만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상해에서 생활했고 그들은 상해 도시 경관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외탄에 즐비한 서양식 건축물들, 화평반점, 상해맨션, 마루공우, 상해소년궁 내에 서양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장식들이며 회해로와 형산로, 홍국로의 플라타너스나무 뒤에서 어두운 등불 빛이 비쳐 나오는 커피샵과 주점들은 상해의 옛 시절을 말해주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상해는 두 팔을 벌려 전세계에서 오는 손님들을 열렬히 맞이하고 있다. 상해는 중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고 있다. 오늘날의 자발적인 개방과 그 옛날의 피동적인 개방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지만 일찍이 상해가 개방한 역사는 이미 상해역사 속에 융합되었다.

지난날 외국문화는 상해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개방 상해는 바야흐로 예전에 없던 자신감과 열정으로 전세계에서 오는 친구들을 맞이하고 있다. 중화문화는 세계각국 문화와 만나 융합하면서 더욱더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다.



서 언  
Preamble

이제 2010년 5월 1일이면 세계에서 가장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동방의 빛나는 진주 상해에서 세계무역박람회(2010년 상해 EXPO)가 개최됩니다. 어려운 세계 경제의 여건 속에서 개최되는 2010년 상해 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시피 19세기 이래 동서 문화가 만나 융합하던 상해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래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상해를 포함한 장강(長江) 삼각주 지역은 한·중 양국의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의 인연이 각별한 상해에서 열리는 엑스포는 한국에게는 그 어느 엑스포보다도 뜻 깊은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주상해총영사관에서도 상해한국상회 등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해엑스포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상해 엑스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일본의 국가관과 인접해 있는 한국관은 엑스포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공간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더 한층 제고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나아가 한국관은 한·중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과 더불어 국가관 외에 기업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상품과 기술을 널리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상해 엑스포가 개최됨을 계기로 상해사회과학원과 상해문예출판집단공사는 동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 등 7개국과 관련된 “상해의 외국문화 시리즈”를 기획·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관련된 “상해의 한국문화지도”에는 상해와 한국과의 인연, 상해에서 활동한 한국인 선조들의 활동상과 현재의 한류, 상해 한국 교민들의 모습을 옛 지도와 진귀한 사진 등을 곁들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엑스포 기간 동안 상해에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이 책을 통하여 임시정부를 비롯한 한·중 우호의 역사와 현재 상해에 진출해 있는 한국 교민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동시에 현지 중국인들도 이 책을 통하여 한·중 우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의미에서 “상해의 한국문화지도”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원고를 집필하신 김광재, 순커즈(孫科志)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책의 출판을 위해 힘쓴 상해문예출판집단공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2010년 상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일  
대한민국 주 상해총영사관 총영사 김정기



간행취지  
상해와 세계를 이어주는 총서  
허청웨이(何承偉) ..... 1

총서  
중화문화가 외국문화와 만나 융합하는 속에서  
승화하다 쉹위에즈(熊月之) ..... 3

서언 김정기 ..... 11

첫째

기억을 더듬고 꿈을 쫓는 한인들 ..... 2

1. 한국인 마음속의 상해 ..... 4
2. 상해 한국교민사회의 변천 ..... 8
3. 옛 인물들과 사건들 ..... 12
4. 상호교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6

둘째

잊을 수 없는 이름들 ..... 24

1. 한국의 첫 번째 신부 김대건 ..... 26
2. 윤치호와 중서서원 ..... 29
3. 김옥균의 상해행 ..... 33



4. 김구, 윤봉길과 홍구공원의거 .....	37
5. 영화황제 김연 .....	43

**셋째**

<b>만화경과 같은 다양한 한국 문화 .....</b>	<b>50</b>
1. 종교 .....	52
2. 교육 .....	56
3. 예술 .....	61
4. 매체 .....	66
5. 기념활동 .....	70
6. 의식주 .....	77

**넷째**

<b>상해 신한국인의 여러 모습과 생활 .....</b>	<b>82</b>
1. 신한국인의 즐거운 생활 .....	84
2. 신한국인의 명절 문화 .....	90
3. 신한국인의 여가 생활 .....	102

**다섯째**

<b>한인들의 사연이 배어 있는 건축물들 .....</b>	<b>108</b>
1. 한국 천주교의 성지 금가향성당 .....	110
2. 한국독립운동의 성지 마당로 한국임시정부 청사 .....	113





3. 프랑스조계의 대표적인 한인 거주지	
보강리 .....	117
4. 임시정부 지도자의 애환이 서린 영경방 .....	122
5. 한인들의 휴식처 프랑상공원 .....	126
6. 임시정부 요인들이 묵힌 만국공묘 .....	130

**여섯째**

<b>밀려드는 “한류”</b> .....	134
1. 한중 수교와 경제 교류 .....	136
2. 문화교류의 상징 - 한류 .....	142
3. 상해의 한국 교민들 .....	147

**일곱째**

<b>부록</b> .....	154
1. 연표 .....	156
2. 참고문헌 .....	162
3. 주요 여행노선 .....	163

<b>후기</b> .....	165
-----------------	-----